

본질 I.

내 생각, 내 마음보다 우선된 진리

1. 본질

[베드로후서 1:16-17]

16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17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그가 믿는 바(진리)를 얼마나 이 땅에서 '실제화' 하느냐에 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분명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1). 추상적이지 않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실제화' 된 것을 믿음이라 말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영적세계를 인정하는 일은 '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앙의 실체는 내가 믿는 바 '진리'에 대한 구조가 '생각과 마음'안에 얼마나 선명하느냐에 달려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제'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내 아버지의 '실제'는 아들에게서 증명된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아버지'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나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나'라는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과 같다. 내가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 아버지의 존재를 상정하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증거들을 찾아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없이 어떤 증거들의 조합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전제의 확신'이다. 내가 믿고있는 전제는 세상이 말하는 '가설'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증명할만한 어떤 것을 찾으면 그 가설은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여김을 받고, 그 증명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의 나무로 끝나버린다.

2. 성경

성경은 가설로부터 추론된 '진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엄청난 진리 (대전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추리와 설명이 아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선포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창조주이신지, 창조주가 행하신 일들을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보며 그 뿌리를 찾는다. 본질의 뿌리를 찾으려고 모든 가설을 총동원하여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그리고 개연성 없는 현상들을 연결시켜 그들만의 '이야기'를 진리라고 만든다.

3. 정렬

세상이 혼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렬은 처음과 끝이 분명하다. 처음과 끝이 있으면, 중간은 자연스럽게 정렬될 수 있다. 정렬은 질서이다. 우주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자연이 그냥 존재하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조화를 이룬다. 마치 탁월한 지휘자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왜 혼잡하고 어려운가?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을 알았다고 해도, 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고 변질되고 타락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겸손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인생은 눈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열매와 현상보다, 열매의 본질인 나무와 뿌리에 관심이 있다. 이들의 인생을 보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들이다.

4. 무엇으로 문제를 개념정의 할 것인가?

왜 본질 시리즈가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진리의 나열, 진리의 해체)의 시대가 주는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 때문에 그렇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로부터 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전은, 이 땅이 주는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인간이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정의'는 순식간에 테크놀러지만 말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주는 문제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디자인한다. 이 문제에 답하는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풀어낸 답들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에 '정의'와 '원칙'이 된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 된다.

누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 세상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보여지는 세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질문들을 받아들인다. 그에 맞추어 자기의 가설을 신념화해서 증명하여 풀어나간다. 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들의 철학과 생각이다. 만약 성경에 위배된 잘못된 철학과 신념으로, 잘못된 '개념정의'들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 지겠는가?

5. 교회의 사명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나오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부른다. 복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쁜소식이다. 문제에 대한 본질의 답이라는 것이다.

*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

[창세기 1:28]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본질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라는 것이다. 해결자가 되라는 것이다. 땅의 문제에 잠식 당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뜻으로 충만하게 하고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현실'이 된다. '실제'가 된다. 복음은 죄로인해 잃었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한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를 믿는 나의 믿음의 실제의 근거를 아는 것이다.

6. 베드로의 고백 (벤후1:17) - 진리위에서 땅의 문제의 본질을 정의.

[베드로후서 1:15-17]

15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16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17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유언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고백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가 아니다. 나는 눈으로 그의 위엄을 보았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고 눈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9:2, 7]

2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마가복음 9장에서 경험한 변화산의 예수님을 증거한다. 인간예수가 아닌 마가복음 9:2절에 '그들 앞에 변형되사'라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본 정체성을 본다. 광채가 나는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본체를 본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마가복음 9:7절의 소리를 듣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 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문제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아들 예수님'의 본질을 분명히 선포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3:17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선포되었던 말씀과 같다.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7. 복음으로 세상을 정의할 수 있는 힘

예수를 통해 회복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성도와 교회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낙약함에 있다. 그렇게되니 상황과 환경과, 더 나아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비본질적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은 '비본질적인 세상의 정의와 개념'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이다.

오늘 베드로가 눈으로 목도하며 증거한 예수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8.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다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서야한다.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 1)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 2)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변화 -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태도
- 3) 말씀을 공부하라.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공부 - '시나고그'의 시작)

이 사람은 세상의 죽은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 소망의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영적인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이다. 이들이 세상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9. 결국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닌 모든 영역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에 입각한) 생각과 마음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하늘의 실재를 이루어 낼 것이다.